

Cover Story ■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133조 투자 왜?

4차산업혁명 시대 주역
반도체 주문생산 '파운드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삼성전자가 화성사업장에 이어 평택사업장에도 극자외선(EUV)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라인을 구축한다고 밝혀 산업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반도체 비전 2030'을 선포하면서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해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 글로벌 1위에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현재 세계 1위에 올라 있는데, 규모가 더 크고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정상에 오르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생소할 수 있는 파운드리는 시스템반도체의 핵심 축으로 삼성전자가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특히 삼성전자가 집중 투자하는 파운드리 공정은 무엇인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정부의 화웨이 견제가 삼성전자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반도체 산업은 빠질 수 없는 분야입니다. 한국 수출 1위 품목이 반도체인 만큼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 경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황순민 기자·황서울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Q. 반도체 기업 종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 반도체 회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제품 설계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모든 분야를 자체 운영하는 '종합 반도체 업체(IDM)'가 있습니다. 종합 반도체 업체는 모든 반도체 생산 공정을 종합적으로 갖춘 기업을 뜻합니다. 삼성전자가 대표적입니다. 한 회사가 웨이퍼 생산 설비인 팹(fab·반도체 소자(semiconductor device)를 만드는 제조라인)을 갖추고 반도체 설계, 웨이퍼 가공, 패키징, 테스트로 이어지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모두 수행합니다.

둘째로 제조 공장 없이 설계 기술만을 담당하는 '반도체 설계업체'(팹리스·Fabless)가 있습니다. 팹리스는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설계를 제외한 웨이퍼 생산,

패키징, 테스트 등은 모두 외주로 진행되며, 외주를 통해 생산이 완료된 칩에 대한 소유권이나 영업권은 팹리스에 있어 자사 브랜드로 판매합니다. 팹리스는 대규모 자본이 드는 공장을 갖추지 않고 설계에 주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반도체 제조를 전담하는 파운드리(Foundry) 업체가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팹리스 업체가 설계한 도면(아이디어)을 받아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이 밖에 IP기업(칩리스), 디자인 하우스 등 특정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반도체 기업도 있습니다.



INSIDE



존레넌 두려워하는 중 2



코로나치료제 언제쯤 11



현명한 소비 첫걸음 12

중국은 왜 40년 전 떠난 존 레넌을 두려워할까

존 레넌(가수, 1940~1980)

1966년 11월 9일, 존 레넌은 런던에 있는 전위예술 갤러리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레넌은 높은 천장에 설치된 캔버스를 발견했다. 캔버스 아래엔 사다리가 있었다. 관객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돋보기로 캔버스에 적힌 작은 글씨를 확인하도록 한 설치예술이었다. 레넌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캔버스에 돋보기를 갖다댔다. 거기엔 'YES'라고 적혀 있었다. 레넌은 신의 계시라도 받은 듯 전율했다.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일본인 예술가 오노 요코였다. 레넌은 오노 요코에게 푹 빠졌다. 둘은 연인이 된다.

◆ 존 레넌과 폴 매카트니

비틀스는 오늘날 명성에 비해 활동 기간은 짧다. 1962년에 첫 앨범을 내고 1970년에 해체했다. 8년간 비틀스가 음악사에 남긴 업적은 압도적이다. 영국 리버풀 노동자 집안 출신으로 몽친 비틀스는 금세 유럽을 점령했다. 1964년 미국에 진출했다. 그 뒤에 벌어진 일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비틀스는 아이콘이 됐다.

비틀스의 양대 주축이었던 존 레넌과 폴 매카트니는 노선이 달랐다. 'Yesterday'를 작곡한 매카트니는 서정적인 선율로 대중의 보편적인 취향을 충족시키려 했다. 반면 레넌은 예술을 통해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했다. 그가 작곡한 'Revolution 9'에는 이런 가사가 흐른다. "네가 마오쩌둥 주석의 사진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 누구와 어떻게든 혁명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야." 노래가 발표된 해는 1968년이다. 세계가 혁명의 기운으로 들끓었다. 중국에선 문화대혁명이, 프랑스에선 68혁명이 일어났다. 레넌은 혁명 세력 편이었다. 다만, 혁명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비극을 목인하지 않았다. 위 노래를 통해 홍위병의 폭력을 부추기는 마오쩌둥을 비판하고, 그런 문화대혁명을 비판 없이 수용한 서양의 안일함을 꼬집었다.

비틀스의 매니저이자 친구였던 앵스타인이 1967년 돌연사로 세상을 떠났다. 비틀스는 우왕좌왕했다. 바로 그때 오노 요코가 불쑥 등장했다. 1969년 레넌과 요



존 레넌과 오노 요코가 신혼여행 중 암스테르담 호텔에서 베트남전쟁에 반대하며 벌인 침대 시위. (사진 제공=위키미디어커먼즈)

코는 3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요코는 비틀스 활동에도 관여하려 한다. 멤버들의 불화는 격해졌다. 결국 1970년 비틀스 역사에 마침표가 찍혔다. 비틀스 팬들에게 요코는 그때도, 지금도 마녀로 통한다. 요코가 레넌을 피어내 비틀스를 떠나도록 부추겼다면 원망한다.

◆ 프라하에는 '레넌 벽'이 있다

체코 프라하에는 유명한 장벽이 있다. 평범한 벽이었던 이곳이 특별해진 건 1980년부터다. 그해에 레넌이 죽었다. 누군가가 프라하 한 광장에 있던 벽에 레넌의 얼굴과 그의 노래 가사를 그리며 스타를 추모했다. 그 당시 체코는 소련의 위성국가 중 하나였다. 체코 시민들은 조용히 반항했다. 레넌 얼굴이 그려진 벽에 남몰래 평화 메시지를 덧칠했다. 어느 순간 이 벽은 '레넌 벽(Lennon Wall)'으로 불렸다. 1989년 체코 국민은 비폭력 혁명으로 공산당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 과정에서 '레넌 벽' 일대는 민주화 운동 거점 기능을 했다.

자유를 갈망했던 체코가 상징적인 무기로 레넌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다. 레넌은 모든 권위에 의문을 제기했던 예술가였다. 비틀스에서 나온 후엔 반전운동에 앞장섰고, 당시 불붙기 시작했던 여성운동에도 관여했다. 체제, 사유재산, 국가, 종교 등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긴 규칙에 물음표를 붙였다. 레넌을 대중음악 스타라는 영역에서 빼내 드넓은 세계로 인도한 사람은 요코다. 레넌은 요코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뉜다. 레넌에게 요코는 종교였다.

◆ 왜 오노 요코였을까

요코를 만나기 전에도 레넌은 급진적이었고, 혁명을 노래했으며, 대담한 예술가였다. 다만, 불같은 성질을 제어하지 못해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솔한 인간이기도 했다. 마약과 술에 절어 망언도 일삼았다. 요코는 어떻게 시한폭탄 같았던 록스타를 제어했을까. 요코는 레넌과 연애하기 전부터 뉴욕이 주목하는 예술가였다. 백남준, 앤디 워홀과 교류하며 아방가르드 예술운동에 동참했다. 급진적인 사상을 가감 없이 드러냈고, 페미니스트였다. 자신의 철학을 버리고 별려 예술에 접목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레넌은 요코의 작업을 보면서 자신이 음악으로 이루려 했던 이상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여겼다.

레넌은 요코와 함께하며 그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을 완성해 간다. 1971년 'Imagine'을 발표했다. 이 노래에서 레넌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국가도 없고, 사회도 없다고 상상해보세요"라고 제안한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필요한 구체적인 곳을 찾아냈고, 그곳을 위한 치열한 가사를 썼다. 'The Luck of the Irish'에서 영국의 잔혹한 북아일랜드 탄압을 고발했다. 'Woman Is the Nigger of the World'에서는 흑인은 몇몇 나라에서만 차별받지만, 여성은 전 세계에서 차별당한다고 말한다.

◆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1975년 레넌은 길고 험난했던 여정을 쉬기로 했다. 요코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 해다. 레넌은 은퇴 선언을 하고 육아에 전념했다. 혁명가는 전업주부가 됐다. 공백은 5년간 이어졌다. 레넌은 1980년 'Double Fantasy' 앨범을 내며 컴백했다. 이 앨범은 유작이 됐다. 1980년 12월 8일, 레넌은 스튜디오 녹음을 위해 집을 나섰다. 집 앞엔 팬들이 모여 있었다. 레넌은 그들에게 사인을 해줬다. 불임을 마치고 저녁에 레넌과 요코는 귀가했다. 집 앞엔 낮에 레넌이 사인을 해줬던 청년 중 한 명이 아직 있었다. 그는 레넌을 향해 총을 쏘았다. 그가 레넌에게 방아쇠를 당긴 이유는 확실치 않다. 범인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청년이었다는 점 말고는 온통 미스터리다.

스타는 사라졌고, 누군가는 무심코 체코의 한 장벽에 레넌을 그리며 추모했다. 이 작은 우연은 그 나라의 역사까지 바꿨다. 오늘날 '레넌 벽'은 평화를 갈망하는 곳 어디에든 등장한다. 작년에는 자유를 꿈꾸는 홍콩에 세워졌다. 그런 홍콩을 응원하는 한국 대학 곳곳에서도 '레넌 벽'이 등장했다. 홍콩의 자유를 반대하는 중국인들은 '레넌 벽'을 훼손하려 했고, 많은 사람은 이에 맞섰다. 'Imagine'에서 레넌은 이렇게 노래한다. "당신은 나를 몽상가라고 부를지도 모르지만,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 '레넌 벽'이 세워지고 있다. 그곳엔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인다. 그들은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조성준 기자

청소년 경제·경영 신문



매일경제·금융저축정보센터 공동 기획

회 장	장대환
발행·편집·인쇄인	손현덕
논설실장	장경덕
편집국장	김정옥
04627 서울 중구 퇴계로 190 편집국 경제경영연구소 (02) 2000-2408	
이메일 : teen@mk.co.kr	
홈페이지 : teen.mk.co.kr	
구독문의	(02) 2000-2383
광고문의	(02) 2000-2200

심청의 희생은 정당했나... 새 화두 던진 현대문학



전현선 교사의
고전문학 감상

고전소설 '심청전'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효심 깊은 '심청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 심청전은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심청이의 효심을 칭찬하는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야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인물들의 행동이 비정상적이라고 느껴진다. 심청이가 바닷물에 뛰어든 일이 과연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심봉사의 행동도 의아하다. 딸이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버리려 하는데,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기 때문이다.

인당수에 빠지는 극단 선택
말리지 않고 부추기는 심봉사
지금보면 시대착오적 '효심'

심청전 재해석한 현대문학
엄마에 점자책 선물하는 등
심청을 진취적 인물로 그려

심봉사: 그러나 저러나 부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왔으니 이제 도리 있겠느냐? 내가 저승사자한테 하루만 말미를 달라 했으니 이제 너를 보는 것도 하루뿐이로구나.

심청: 아이구. 이 일을 어찌누.

심봉사: 눈까풀이 들어붙지 말구 이 주둥아리가 들어붙었더면 좋았을 것을. (자기 입을 때린다)

심청: (말리며) 진정하세요. 좋은 수가 있을지.

심봉사: 좋은 수라니? (한참 후에) 장부자네 소설 얘기 말이야?

심청: 내가 마다가에 다른 여자를 들였다 합디다.

심봉사: ……

심청: (멍하고 앉아 있다)

심봉사: 나는 죽었구나. (이불을 뒤집어쓴다)
최인훈 희곡, '달아 달아 밝은 달아' 中

현대소설 작가 최인훈은 심청전을 소재로 희곡을 창작했다. 희곡은 무대에서 공연할 것을 전제로 쓰는 연극의 기본이다. 대본 속 심봉사는 딸에게 하소연을 한다. 공양미 300석을 바치기로 했지만, 쌀을 구할 방법이 없으니 어찌 면 좋겠느냐고 묻는다. 그리고 딸에게 슬며시 '장부자네' 이야기를 꺼낸다. 청이가 예전에 부잣집에서 첩으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다. 부잣집에 첩으로 들어가면 쌀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묻는 것이다. 청이가 그 집에는 이미 다른 여자가 들어갔다고 말하니, 심봉사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슬퍼한다.

심봉사는 자신을 위해 딸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심봉사의 모습은 현대 희곡뿐 아니라 고전소설 '심청전'에서도 비슷하게 보이는 내용이다. 따라서 심청이의 희생은 아버지의 하소연에 못 이겨 강요당한 것으로 보인다. 장님이 눈을 뜨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자신이 눈 뜨기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뽕덕어미: 여보소 봉사님 이 따위 짓 해서는 무얼 하시려우 부모 자식 간에도 저마다 길이 따로 있는데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휘딱 이 자리를 떠나 버립시다

심봉사: 그렇게 말해두 이 사람 못 알아듣네 못하겠네 그것만은 못하겠네 이놈 주둥아리 한 번 잘못 놀려 부처님께 시주한다 내가 한 말 때문에 남경배 상인들께 공양미 값으로 팔려 물 건너 대국 땅에 기생살이 팔려가는 내 딸 심청이가 떠나는 뱃길을 배웅이나 하고서야 이 발이 떨어지겠네 뽕덕어미 잘 보소 이제는 두 몸이 한 몸 같은 뽕덕어미 네 두 눈 밝은 자네가 우리 청이 보이거들랑 보인 다 말을 하게

최인훈 희곡, '달아 달아 밝은 달아' 中

결국 희곡 속 심청은 쌀을 마련하기 위해, 뱃사람들에 의해 다른 나라에 기생으로 팔려간다. 고전소설에서는 바닷물에 재물로 바쳐지는 것이, 희곡에서는 현대적인 상황에 맞게 변용된 것이다. 그런데 딸이 다른 나라에 팔려가는 상황에서 심봉사는 딸을 말리지 않는다. 딸을 배웅해야 발이 떨어지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끝까지 가지 말라고 하지는 않는다.

고전소설의 행복한 결말과 달리 이 희곡의 결말은 아주 비극적이다. 심청은 결국 외국에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정신이상자가 되어 고향에 돌아오는 처참한 삶을 살게 된다. 고전소설의 행복한 결말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만, 현대 희곡의 비극적인 결말은 오히려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지 못하여/ 당신이 평생을 어둡더라도

결코 인당수에 빠지지는 않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 남아 책을 보겠습니다. //

나비여./ 나비여./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하여/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일까요? //

그대신 점자책을 사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점자 읽는 법도 가르쳐 드리지요. //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국어 같은 것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김승희, 배꼽을 위한 연가5

심청전을 소재로 한 현대사이다. 고전소설과 달리 장님으로 설정된 사람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변화는 심청이의 태도다. 눈물을 머금고 인당수에 뛰어든 심청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심청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어머니께 점자 책을 사드릴 수 있지만, 인당수에 빠지지는 않겠다고 선을 긋는다. 사람은 모두 평등한 존재로 누구도 자신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심청이를 '효심이 없다'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심청이'는 가정에서는 딸이고, 사회에서는 어린 여자다. 그동안 아버지나 오빠와 같은 자신보다 나이 많은 남자들에 의해 쉽게 희생을 강요당해왔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무감각하게 고전소설 속 심청이의 희생을 교훈으로 삼으려 했는지도 모른다. 심청전을 소재로 한 많은 현대문학은 심청이의 희생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고전소설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현대에 재해석되는 양상을 통해 우리에게 더 많은 의미와 질문거리를 던져주기도 한다. <양주고국어교사>

삼성전자가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짓는 이유는

파운드리 '최강' 대만 TSMC 10년내 추월



삼성전자는 경기도 평택캠퍼스에 파운드리 생산시설을 구축한다고 5월 21일 밝혔다. 사진은 평택캠퍼스 항공사진.

(사진 제공=삼성전자)

Q.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에 집중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삼성전자가 이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메모리(D램·낸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비메모리(CPU·모바일AP·이미지센서 등)에서도 2030년까지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는 △모바일AP(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셋)·이미지센서 경쟁력 강화 △차량용 반도체 개발 확대 △파운드리 선두 업체(대만 TSMC) 추격 등 핵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시스템반도체는 향후 5G,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서 새로운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의료용 반도체, 인공지능(AI)용 반도체가 특히 유망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파운드리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축입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중요성을 강조한 까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문형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글, 테슬라,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 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설계 팀을 별도로 두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Q. 파운드리 공정은 무엇일까요.

A. 파운드리는 생산 공정을 전담하는 기업으로, 자체 제품이 아닌 수탁 생산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직접 설계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서 위탁받은 제품을 대신 생산해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수조 원대 시설 투자비용이 들고 고도의 생산기술이 필요해 반도체를 개발하는 모든 회사들이 반도체를 생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파운드리는 수많은 팹리스 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령 화웨이가 생산하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설계하면 이를 위탁받아 대만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생산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팹리스 업체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실제 반도체 칩으로 구현하는 파운드리 역할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Q. 삼성의 파운드리 경쟁자는 어떤 회사인가요.

A.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대표적인 경쟁자는 독보적인 업계 1위인 대만 TSMC입니다. TSMC는 오랜 노하우로 축적된 기술뿐 아니라 공급 생태계, 거래처 등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올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2% 늘어난 매출을 기록하며 '업계 최강자'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TSMC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작년 4분기 52.7%에서 올 1분기 54.1%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삼성전자 점유율은 17.8%에서 15.9%로 낮아졌습니다. 두 회사 간 경쟁은 최첨단 미세공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나노공정은 회로 폭을 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급으로 줄여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을 말합니다. 나노공정이 미세해질수록 칩 크기를 줄일 수 있고 전력효율과 성능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두 회사만이 7nm 이하 초미세 공정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는 연내에 나란히 5nm 반도체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Q.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삼성전자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A. 최근 화웨이에 반도체 칩 공급을 중단하도록 한 미국 정부 규제에 발맞춰 TSMC는 중국 화웨이 측에서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120억달러를 들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화웨이와 하이실리콘(화웨이의 반도체 설계 회사)은 TSMC에서 반도체 부품을 공급받았는데 TSMC 전체 매출 중 12%를 차지할 만큼 큰 고객사입니다. 그럼에도 TSMC가 화웨이를 포기한 이유는 미국의 대중국 공세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단기적으로는 삼성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화웨이가 삼성전자에 구매를 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로서는 미국 정부의 압박이 예상되므로 선불리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황순민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맨 아래 오른쪽)과 리커창 총리(맨 아래 왼쪽)가 2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폐막식에 정협 위원으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시 주석과 리 총리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 눈에 띈다. [EPA· 연합뉴스]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란 무엇인가요

중국에서 매년 3월에 거행되는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5월 21일 열렸습니다. 양회를 통해 중국 정부 운영 방침이 정해지기 때문에 각국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면서 세계가 격랑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Q. 중국 양회란 무엇인가요.

A. 양회는 매년 3월 중국에서 열리는 최대 정치 행사를 뜻합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아울러 부르는 말이 양회입니다. 중국 정·재계 엘리트 5000명 안팎이 매해 봄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에 집결해 국가 운영 방침을 결정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
매년 3월 열리는 두 회의를 ‘양회’라 불러
올해는 코로나로 5월 21일로 연기해 개최**

경제 규모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인 중국의 정책 방향이 제시되는 만큼 양회 기간에 전 세계 이목이 중국에 집중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쓰러진 경제를 중국이 어떻게 일으켜 세울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중국 책임론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Q. 양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전인대는 중국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입법권, 국가 의사 결정권 등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주석 등 지도부 선출·파면이나 국가 예산 심의·비준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개헌 권한도 있습니다. 2018년 3월 헌법에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곳도 전인대였습니다. 전인대 권한은 구성원 3000명이 14억 중국인을 대표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인민대표’라고 부릅니다. 정협은 중국공산당이 정책을 결정할 때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자문기구입니다. 정협

위원 2000명은 전인대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입법권이나 의사 결정권은 없습니다.

양회는 민주적인 대의제 형태를 갖췄지만 사실상 공산당 결정을 거스르지 않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Q. 올해는 5월로 연기돼 열렸는데.

A. 매년 3월 초 열리는 양회가 올해 이례적으로 5월 21일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지던 3월 예년처럼 인민대회당에 1만여 명이 모여들면 집단감염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두 달 정도 연기한 것입니다. 양회 날짜가 미뤄진 건 사상 처음이어서 중국 코로나19 실태와 함께 외신의 비상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바뀐 건 이 뿐만이 아닙니다. 평소 2주간 진행했던 양회 기간도 절반가량 단축돼 28일 폐막했습니다. 감염 예방 차원에서 각 지방정부 대표단을 최소화 줄여 올해 참가 인원은 평소 대비 절반인 5000여 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취재단 숫자를 제한했고 기자회견은 모두 영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인민대회당 내부에서는 시 주석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를 제외하고 모든 참석자가 마스크를 쓰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Q. 올해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내놓지 않았는데.

A. 중국은 지금껏 전인대 개막식 때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와 함께 구체적인 성장 목표 범위를 내놓지만 올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그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대유행과 세계 경제·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일으킨 불확실성의 여파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불리 경제 목표를 제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은 -6.8%이란 처참한 성적을 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1~2월 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1992년 통계를 공개한 이래 최악의 기록입니다. 지난해 6~6.5% 성장 목표를 잡아놓고 달성(6.1%)한 것보다 큰 대조를 이룹니다.

경제 목표치를 내놓지 않은 건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 지도부는 2020년까지 ‘샤오강 사회(小康社會·의식주 걱정 없이

풍족한 사회)’를 이뤄내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제시했던 2010년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달성하려면 올해 5.6% 성장을 이뤄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샤오강 사회 건설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올려 잡았다가 체면을 더 구길 바에는 밝히 않는 게 낫다는 계산인 것입니다.

중국은 그 대신 초강력 경기부양책을 내놨습니다. 7조2500억위안(약 1254조원) 규모 종합 처방으로 경제 충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생계가 위협받는다 판단하여 취업과 민생 안정, 탈빈곤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습니다.

중국 고위 관계자는 “1분기 경제성장률(-6.8%)이

**각 지역 대표자 5000명 베이징에 집결
새로운 법 만들고 경제정책 방향 결정
이번엔 홍콩보안법 문제 등 전세계 주목**

역성장하면서 중국 지도부는 올해 최대 과제로 ‘경기 부양을 통한 민생 안정’을 잡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내수 시장의 잠재성과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확대와 접목돼 경기 부양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Q. 양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중국 지도부는 양회 막이 오르자마자 이른바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중앙정부에 대해 정권 전복을 시도하거나 테러 행위, 반란을 꾀한 위험인물에게 최대 30년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홍콩 의회에서 입법되길 기대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반발로 번번이 좌초되자 직접 입법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로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해온 홍콩에 대한 직접 통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진영화 기자



최병일 박사의
말랑말랑 경제학

코로나19가 중국에 한정돼 있던 2월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확산 경과에 따라 거시경제에 미칠 충격을 시나리오별로 전망했다. 코로나19가 과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처럼 조기에 종식되면 1분기 중국 경제지표만 국지적으로 하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며, 세계 경제는 'U'자 형태로 금방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초기 경제학자들이 전망했던 희망 사항과 달리 현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했고, 전문가들이 예상한 최악의 경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백신이 개발돼 코로나19가 지구상에서 사라져도 침체됐던 세계 경제는 당분간 탄력적으로 회복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코로나 후폭풍에... 산업 구조도 급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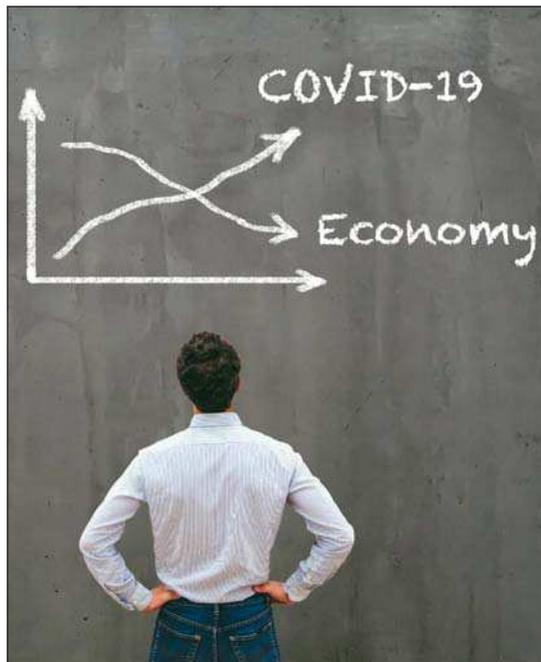
Q.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세계 경제는 어떻게 변할 수 있나요.

A.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가 “글로벌 경제 전반이 'I'자형으로 급락할 것이라는 예언이 더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짧은 시간 용수철을 당겼다가 힘을 빼면 용수철은 금방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나 장시간 용수철을 당기고 있으면 용수철은 어느 순간 탄력성을 잃고 늘어난 형태로 고착된다. 지금 세계 경제가 그런 형국에 있다. 이는 경기가 하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모양새도 이전 형태로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사람들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집단이 모이는 장소나 직접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을 기피하게 됐다. 자연스럽게 언택트 경제(Untact Economy)가 활기를 얻었다. 한때 1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던 쿠팡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증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곧 흑자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반면 신한카드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오프라인 유통 산업의 대표인 대형마트에서 일일 카드 결제 대금은 전년 대비 36%가량 감소했으며, 백화점은 37%가량 급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온라인 매출은 지금보다 다소 감소할 것이고, 오프라인 매장 매출은 일부 회복하겠지만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업체의 우세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Q. 코로나19가 산업 구조를 바꿀 수도 있나요.

A. 역사적으로 기술이 발전해 새로운 산업이 부각될 때는 항상 기존 산업의 저항을 받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세기 초반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으로 발명된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이 발생했다. 3차 산업혁명을 지나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로봇과 인공지능(AI) 기술은 기존의 단순 노동자들 일자리를 위협했다. 지금까지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을 우호적으로 평가해온 경제학자들마저도 4차 산업혁명은 거시경제 전반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우려 때문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변화는 수익성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디지털화와 자동화에 대한 우려를 일시에 종식하고 온라인 산업과 언택트 경제의 성장을 급속도로 진행시키는 계



<게티이미지뱅크>

기가 됐다. 특히 플랫폼 기업을 필두로 정보기술(IT) 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전통적인 노동 집약 산업은 급격히 쇠퇴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극장 산업과 공연 산업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수준의 매출을 경험했다. 지난 3월 국내 영화관 관람객은 200만명을 채 넘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00만명의 20%에도 미치지 못한 저조한 수치다. 반면 넷플릭스, 왓챠플레이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매출은 전년 대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OTT 산업 1위 업체인 넷플릭스는 2020년 1분기에만 전 세계 신규 가입자가 1577만명 더 증가했다. 이는 지금까지 넷플릭스에 가입한 유료 회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같은 변화는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콘텐츠 공급자에게도 큰 충격이겠지만 콘텐츠를 유통하는 기업에는 사업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결국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오프라인 영화 산업이 쇠퇴하고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OTT 기업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산업 전반에 종사하던 단순 노동자들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바이러스라는 예기치 않은 변수로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되면서 '전염병 예방'이라는 대의명분을 갖고 특별한 저항 없이 해당 산업에 새로운 기술들이 무혈 입성하고 있다. 이는 금융, 교육 등 다양한 산업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Q. 경기 하강에 대비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나요.

A. 한국뿐만 아니라 대다수 선진국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산업 구조가 급격히 변화해 특정 부분의 효율성은 제고되지만 소득불균형과 같은 부작용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주요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정부 또한 현금성 지원 정책을 실시하며 공격적 재정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이익이 발생한 곳에서 세금을 더 걷어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아이디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런 정책은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하락시키면서 소득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놀라운 적응력으로 항상 기대보다 빠른 속도로 경제를 회복했던 전력이 있다. 그동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 충격에는 가장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경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1.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면 경기는 'I'자 형태로 급격히 회복된다. ()
2. 코로나19로 온라인 기업보다 오프라인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게 됐다. ()
3. 최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정답 1.X 2.X 3.O



임성택 박사의
도전과 승전의 경제학

1960년, 쟁쟁한 시카고대학 교수들이 모인 세미나에서 한 영국 출신 경제학자가 외부효과에 대한 피의 이론을 비판했다. 고전학파적 접근에 익숙했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그의 주장에 반대했지만, 토론이 끝나갈 무렵에는 모두가 그에게 설득되었다. 이날 토론의 내용은 짧은 논문으로 발표되었는데, 현재까지 가장 많이 인용된 경제학 논문 중 하나가 되었으며 훗날 노벨경제학상의 영예를 안겨 주었다. 그 자리의 주인공은 로널드 코스(Ronald Coase)였다.

로널드 코스 ‘거래비용’ 이론으로 기업의 본질 설명

Q. 외부효과가 있을 때 교정세(피구세)가 꼭 필요한가?

A. 코스는 외부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에서 개인들이 협상을 통해 최상의 결과가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이때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오염물질에 대한 권리를 누구에게든 주어야 한다는 점(재산권의 확정)과 협상 과정에 추가적인 비용(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야식을 배달할 때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입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식당은 야간에 배달함으로써 순이익 100만 원을 얻는다. 주민들은 늦은 밤에 배달 오토바이 소음으로 잠을 설치지 않기 위해 30만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

주민들 민원을 받은 구청은 가장 간단한 해결책으로 야식배달을 제도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다. 이럴 경우 주민들의 소음 피해(30만원)는 없어지지만, 식당의 이익(100만원)도 함께 사라진다. 만약 ‘조용한 밤을 보낼 권리’를 주민들에게 준다면 어떻게 될까? 식당 주인은 주민들에게 피해에 상응하는 보답을 제공하기로 약속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이 제안에 응할 경우, 야식배달은 계속되고 사회적 후생은 금지시켰을 때보다 개선된다.

만약 많은 사람이 사는 아파트였다면 어떨까? 가구 수가 많아 소음에 대한 피해가 200만원으로 크게 나타날 경우, 소음 발생에 대한 권리를 식당에 주더라도 주민들은 식당 측에 야간 영업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재산권을 누구에게 주더라도 협상을 통해 최선의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코스 정리(Coase theorem)라고 한다.

Q. 코스는 거래비용 개념을 통해 기업의 존재 이유를 설명했다는데?

A. 젊었을 때 사회주의에 심취했던 코스는 런던정치경제대(LSE)에서 경제학을 배우면서 ‘시장경제와 가격을 통한 자원배분’ 원리에 심취하였다. 그가 보기엔 경제이론은 가상적 세계를 다루면서 현실과는 괴리되어 있었고, 따라서 그는 ‘철관 경제학’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채우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였다. 그 간극의 대



[EPA]

표적인 것이 기업이었다.

코스는 시장에서 거래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이 출현한다고 주장했다. 거래비용이란 거래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비용들을 총칭한다.

기업이 생산 과정 일부를 시장에 맡기려고 할 때, ‘적당한 거래 상대방 탐색’ ‘지속적 거래를 위한 계약서 작성 등 법률 비용’ 등 여러 측면의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거래비용이 너무 큰 상황이라면, 차라리 기업 내부에서 소화해 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Q. 기업 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

A. 거래비용으로 기업이 필요하다면 기업은 어느 정도로 커져야 할까? 시장의 모든 생산을 단 한 개의 거대 기업이 담당하면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코스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가가 자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조직이 제 기능을 잘 하는지 관리하기가 어렵다. 인원이 적은 기업은 경영자가 조직원을 직접 대면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대기업에서는 직원이 너무 많아 그럴 수 없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중간관리자가 더욱 많이 필요하게 되고, 조직이 계층화되면서 경영자의 지시가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어렵다. 코스는 기업이 어떤 거래를 ‘조직 내부에서 처리’할 때의 비용과 ‘외부 조달’로 해결할 때의 비용(거래비용까지 감안한다)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기업의 최적 크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봤다.

Q. 코스가 법경제학 분야의 선구자라는데.

A. 코스 정리는 거래비용이 없을 경우 적용되는 이론인 데 반해, 코스 자신은 현실의 문제에서 거래비용은 정도의 차이일 뿐 대부분 존재한다고 보았다. 양(+)의 거래비용이 있다면 정부의 조치가 시장보다 항상 비효율적이라 볼 수 없으며, 더 우수한 결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을 운영하는 것에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코스는 정부의 개입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정부가 어떤 조치(법제도)로 관여하는 것이 좋은지를 분석하는 것이 법경제학의 역할이라 생각했다.



1. 거래비용이 없다면, 재산권을 누구에게 부과하더라도 협상으로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2. 기업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거래비용이라 한다. ()
3. IT 발전과 정보 습득 비용 하락은 근로자를 그때그때 고용하는 ‘긱 이코노미’ 확산의 원인이 된다. ()

▶ 정답=1. ○ 2. X 3. ○

어제 1200원과 맞바꾼 ‘1달러’



〈게티이미지뱅크〉

오늘 1250원 있어야 하는 까닭

금이는 최근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해외직구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생을 위해 자신이 일주일 전 구매했던 나이키 신발을 같은 가격(달러화)으로 재구매했는데, 그동안 환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이전보다 많은 금액(원화)이 청구되어 속상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환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환율이 무엇인가요.

A. 달러 등 외국 돈을 살 때 지불하는 돈, 즉 외화의 가격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즉, 달러당 환율이 1000원이라는 것은 1달러 가격이 100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앞 사례에서 보듯이 환율은 매 순간 변동되므로 금이가 동일 가격(달러화) 상품을 구매했다라도 구매 시점 환율에 따라 실제 원화로 청구되는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상품 가격이 시장에서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듯이 외화를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해보면 외화 가격(=환율)도 외화에 대한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가령 외국에서 상품 수입이 늘어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기업들의 외화 수요가 증가

하면 외화 가격(=환율)은 상승합니다.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면 동일한 외화 구입에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여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되어 ‘원화 약세’ 또는 ‘원화 평가절하’가 일어나

외국의 화폐 가격인 ‘환율’ 수요·공급 따라 변동 지속 국내에 외화 많으면 환율 ↓

화폐 발행 늘린 베네수엘라 자국 통화 가치 폭락해 혼란

빅맥지수·스타벅스지수 등 동일 물건 현지 가격 비교로 적정 환율 구해보는 방법도

로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출이 늘어 국내에 외화 공급이 증가한다면 외화 가격(=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 같은 환율 하락은 마찬가지로 ‘원화 강세’ 또는 ‘원화 평가절상’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환율이 크게 상승·하락하는 등 변동

성이 커지면 일상적인 경제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바로 2016년 ‘윈도10 베네수엘라 대란’입니다. 원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베네수엘라는 지속된 유가 하락으로 국고가 바닥나자 화폐 발행을 크게 늘려 자국 화폐(볼리바르·Bs.F) 가치가 폭락하였고, 무역 시 적용되는 환율(1달러=650볼리바르)이 국가공식 환율(1달러=10볼리바르)보다 65배 높게 치솟았습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229달러인 윈도10을 현지에서 공식 환율로 환산한 2299볼리바르에 팔았는데 구매자들은 무역 환율로 환산한 달러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윈도10이 정가 대비 1.5%인 단돈 3.5달러(2299볼리바르 ÷ 650볼리바르)에 팔리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환율의 정상적인 관리에 실패하면 국가경제와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Q. 환율이 적정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영국 경제잡지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에서 팔리는 맥도널드 빅맥을 이용한 ‘빅맥 지수’를 개발하였는데요. 이는 동일 물건의 가치는 동일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동일 물건에 대한 각국의 현지 화폐 가격을 서로 비교하여 적정

환율을 구해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빅맥 가격은 미국에서 5.51달러, 우리나라에서는 4500원이었는데요. 양국 빅맥이 동일한 가치를 지녔다고 하면 5.51달러=4500원이 성립되어야 하므로 1달러=816.70원이 적정 환율입니다. 당시 실제 환율은 1달러=1116.60원이었으므로 적정 환율과 비교했을 때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조건들이 모두 고려되지 않은 단순 추정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기보다 각 나라 환율 수준을 판단할 때 참고 자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원리로 전 세계에서 팔리고 품질도 균질적인 스타벅스 커피를 활용한 ‘스타벅스 지수’ 등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율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세계화가 진전되고 IT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제는 집에서 클릭한 번으로도 세계 각국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에 따라 내가 부담할 가격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소 환율 움직임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융교육국 학교금융교육팀

▶ 여기서 잠깐!

Q 환율을 이용한 금융상품은

A 외화 예·적금은 원화로 저축 시 외화로 환전되어 입금되므로 은행 이자와 환율 상승에 따른 차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항상 상승하는 것이 아니므로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가입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개선... 경기회복 이어질까

틴매경TEST 고득점을 위해서는 선행학습이 중요하다.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가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를 소개한다.



26일 서울 망원시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 연합뉴스 】

아래 사례를 읽고, (가) A씨가 보험금 및 보험금 지급 지연 손해금액 지급을 주장하는 근거와 (나) B화재보험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근거를 올바르게 짚지 않은 것은?

A씨는 아들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자 보험 계약을 체결한 B화재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B화재보험은 계약 당시 A씨가 아들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계약 당시 B화재보험 측에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사망보험금과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 | |
|-------------|-----------|
| (가) | (나) |
| ① 고지의무 위반 | 설명의무 위반 |
| ② 고지의무 위반 | 적정성 원칙 위반 |
| ③ 설명의무 위반 | 고지의무 위반 |
| ④ 설명의무 위반 | 적합성 원칙 위반 |
| ⑤ 적정성 원칙 위반 | 적합성 원칙 위반 |

(해설)
보험이 위험에 대한 경제적 보장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계약당사자는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진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설명의무라고 한다. 한편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계약상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지의무라고 한다. B화재보험은 A씨가 아들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계약 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반면 A씨는 계약 당시 B화재보험으로부터 아들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듣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손해금액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삼고 있다. 정답은 ③

아래 기사를 읽고, 국내 경제에 대한 가장 올바른 추론을 고르면?

소비자 심리지수 개선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달 대비 6.8포인트 상승한 77.6을 기록해 코로나 확산으로 얼어붙었던 소비자심리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비자심리지수 조사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시기와 겹쳐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부양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경제 상황에 관한 소비자의 전망 및 자신감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보다 큰 경우 과거(2003년~2019년 12월)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은 경우 비관적임을 뜻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의 국내 확산이 본격화된 2월(96.9), 3월(78.4), 4월(70.8)까지 이어진 하락세가 반등한 것으로 향후 경기 회복세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향후 경제에 대한 소비자심리가 완전히 낙관적 추세로 돌아섰다.
- 그동안 소비 위축으로 인한 총수요 감소가 경기 둔화를 견인했을 것이다.
- 중앙은행이 현재 경기 상황을 반영한다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향후 증세를 염려해 민간은 소비를 이연시키고 있다.
- 최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재정 건전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이다.

(해설)

소비자심리지수는 2~4월까지 감소 추세를 이어가다 5월 반등했으며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비자심리지수 상승뿐만 아니라 실물소비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낙관적 추세라고 볼 수 없다. 정답은 ②

최봉제·이인혜 매경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지붕이의 용어사전

▶ **다크 넷지 (dark nudge)**
넷지는 강요하지 않고 부드럽게 설득해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다크넷지는 기업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가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태를 말한다. 최근 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을 노려, 첫 달 무료로 결제를 유도한 후 자동결제 연장 통보 없이 매달 요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 **대손충당금**
금융회사에서 말하는 대손충당금은 은행이 가계

나 기업에 대출을 해줬을 때 입을 수 있는 손실을 평가한 금액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은 외국 은행들은 순이익 감소가 컸지만 충당금을 적게 쌓은 국내 금융사들 실적은 소폭 감소했다.

▶ **티포탸 (Tit for tat)**
지역하면 상대가 치면 나도 가볍게 친다는 의미로, 일명 맞대응 전략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전략 방식으로, 최근 무역 분쟁에 돌입한 미국과 중국이 양측을 상대로 티포탸 전략을 선택하

다크 넷지·대손충당금·티포탸·액면병합

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 액면병합

여러 개의 주식을 1주로 합쳐 액면가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을 500원으로 병합하는 경우 5개의 주식은 1개가 된다. 이는 시장에 유통 중인 주식 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최근 연예소속사인 키이스트가 적정 유통 주식 수 유지와 주가 안정화를 위해 액면가를 1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하는 액면병합을 결정했다.

이예주 매경 경제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아하, 과학



원은지 박사의 생명과 과학

아카시아 향이 나면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 20년 전 그 친구는 자신의 엄마가 본인을 출산하러 가던 길에 아카시아 향이 진하게 났다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다며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했다. 필자는 그 뒤로는 아카시아 향이 날 때마다 그 친구와 그 친구의 어머니를 떠올린다. 친구에게 전화를 하며 미리 생일을 축하한다. 그렇게 매년 잊지 않고 생일을 축하할 수 있어서 단지 뒤에 핀 아카시아가 고맙다.

Q. 감각과 기억의 관계는.

A. 감각은 기억을 남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중 시각은 대부분 인간이 사용하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감각이다. 한 연구는 평상시 약 70% 이상 감각 신호를 수용하는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인간이 태어나 처음 접하는 기본적인 감각은 시각이 아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눈과 이것을 인지하는 뇌의 모습에 비해 이를 구성하는 신경세포가 덜 발달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후 1개월 이후나 돼서야 사물의 형태를 구별한다. 그렇다고 인간이 시각을 통한 자극이 없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는 않는다.



이스라엘 히브리대 신경생물학연구실 연구진은 같은 어휘를 기억하는 데 있어 우리의 뇌가 시각에 크게 의존하는 반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 부분을 다른 기능을 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그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높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어휘에 대한 기억력 테스트에서 선천적 시각장애인들이 정상인에 비해 약 20~35% 단어를 더 기억하는 결과를 보인 것이다. 사물을 기억하기 위한 또 다른 감각을 활용하고 발달시킨 결과다.

Q. 후각 경험과 기억의 관계는.

A.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마들렌을 먹던 주인공이 마들렌 향을 통해 과거를 기억하는 데에서 따와 '프루스트 효과'라고도 한다. 냄새는 냄새를 감지하는 신경세포에 발현하는 후각 수용체에 의해 그에 대한 정보 처리가 진행되는데, 시각이나 청각을 통한 감각 정보들이 모두 시상상을 거쳐 대뇌로 이동하는 반면 후각을 통한 정보는 변연계라고 하는 곳으로 신호를 전달한다. 변연계는 간뇌 위치에서 시상하부와 편도체, 해마로 구성된 기관으로, 뇌에서 감정과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다. 다른 감각과 달리 후각에 연계된 기억이 감정의 기억을 동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향기를 맡으면 단순히 그 향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감정도 함께 떠올리게 된다. 또 편도체는 후각의 자극을 통해 장기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를 더 자극하기 때문에 향과 함께 기억된 것은 장기 기억화되기 쉽다.

Q. 기억은 어떻게 뇌에 저장되나요.

A. 뇌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경세포(뉴런)가 있는데 추산되는 그 수는 100억개 정도로 다른 체세포와 달리 신경세포엔 매우 많은 가지(가지돌기와 축삭)들이 뻗어 서로 연결돼 있다. 인간의 기억은 뇌의 신경세포와 시냅스에 저장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자극이 되어 신경세포에 기록되는 과정에서 저장, 유지, 회상으로 나뉘는 재구성 과정을 거쳐 '기억'으로 남는다. 그중에서도 수십 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기억은 유전자 발현과 단백질 합성을 통해 시냅스의 구조가 단단해지는 경화(응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억에 정보가 추가되거나 수정될 때도 단백질 분해와 재합성이 일어나는데 과학자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 기억을 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04년 상쳐받은 기억을 선별적으로 없앤다는 내용의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법하지만 최근 과학 기술로 영화의 모티프를 현실화할 수 있을 법한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KAIST 생명과학과와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은 생쥐 뇌의 흥분성 신경세포에서 이토시톨이라는 효소를 제거한 결과 학습을 통해 얻은 공포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했다. 스웨덴 웁살라대 연구팀은 기억이 뇌에 저장되기 전에 지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사이언스에 발표하기도 했다. '응고화'라는 과정을 통한 단기 기억의 장기 기억화 과정을 방해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이다.

Q. 자전거 타는 방법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A. 절대 잊히지 않는 기억도 있다. 뇌가 무언가를 기억하는 방법에는 절차적 기억(procedural memory)과 선언적 기억(declarative memory)이 있다. 두 기억법은 사용하는 뇌의 위치가 다르다. 절차적 기억은 소뇌를 포함한 조가비핵이나 미상핵을 사용한다. 절차적 기억이란 반복된 신호가 신경세포가 연결되는 시냅스를 강화하면서 동적 행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새로 알게 된 정보를 바로 입력하는 단기 저장소인 뇌피질 겉 표면은 반복된 정보의 자극에 의해 자극을 전달하는 길에 익숙해지는데 그렇게 동작에 의한 자극으로 신경이 반복된 자극을 받으며 몸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절차적 기억에 속하는 행위들, 자전거 타기, 악기 연주, 걷기 등은 그 동작으로 인해 의식이 방해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현관 출입번호를 언어로 표현해야 할 때 샵(#)과 별(*) 버튼을 헛갈려 하지만 정작 문 앞에서 손가락으로 키를 누르듯 흥내를 낼 때 쉽게 기억한다.

또 다른 장기 기억법은 선언적 기억법으로 해마를 포함한 뇌의 측두엽에 저장되는데 스스로가 그 기억을 하고 싶어서 기억을 하는 형태의 기억이다. 그렇기에 기억을 저장하는 주체가 소뇌가 아닌 해마다. 교육을 통해 풀어 이해하고 외워서 얻은 지식이 기억으로 남거나 경험에 의해 얻어지는 기억을 의미하기에 말 그대로 지식, 알고 있는 것들, 설명, 회상 가능한 것들을 말한다. 다음주 기말고사를 앞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억법이다. 한양대 해양·대기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코로나 치료제 개발”... 불 밝힌 전세계 실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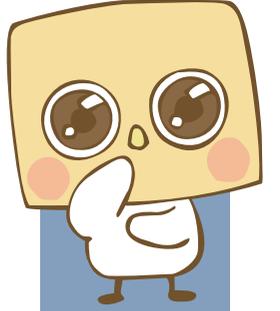


김시균 기자의 과학 이야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의 쓰나미로 몰아넣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저마다 코로나19 치료제(항바이러스제)와 백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가운데 렘데시비르(에볼라 치료제), 칼레트라(에이즈 치료제) 등이 일찌감치 코로나19 치료에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졌고, 최근 렘데시비르는 세계 첫 코로나19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그렇다면 바이러스 치료제는 무엇이고 백신은 뭘까. 이들은 바이러스를 어떻게 격퇴하는 걸까.



세계 첫 코로나19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유력한 렘데시비르. <사진 제공=AP 길리어드사이언스>



아하, 과학

Q. 바이러스 퇴치법은 어떤 게 있나요?

A. 크게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바이러스 치료제), 혈장요법, 단일클론항체요법 등이 있다.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게 백신이라면 치료제는 몸속으로 이미 들어온 바이러스가 활성화하지 못하게 억제시킨다.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수시로 생성되므로 백신을 개발하기가 만만찮다. 이 때문에 몸속 세포에서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대부분이다. 단일클론항체는 병원체의 특정 단백질(항원) 하나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로, 단일클론항체를 찾으면 코로나19 치료 또는 감염 예방에 이용할 수 있다. 세포 내 바이러스 증식 메커니즘이 밝혀지면서 항바이러스제가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기생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제거 자체가 곧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생각해 항바이러스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바이러스 복제 길목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항바이러스제 개발이 활발하다.



같은 코로나바이러스 그룹인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또한 백신이 지금까지 안 나왔다.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도 백신은 아니다.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다.

Q.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왜 치명적인가요?

A. 중국 연구팀이 최근 국제 학술지 ‘뉴잉글랜드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환자 대부분에서 ‘T세포 결핍증’이 관찰됐다. 특히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중환자와 사망한 환자는 입원 당시 평균 T세포 수가 1㎢당 700개로 정상인(1500~4000개)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T세포는 체내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분비돼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사이토카인 폭풍’과도 관련성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동물 실험에서 T세포 수가 충분하면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키는 염증세포를 T세포가 조절해 치명적인 면역 반응의 불균형을 막아준다.

Q. 코로나19를 비롯한 바이러스는 어떤 특성이 있나요?

A. 우리 몸은 스스로 만들어낸 항체가 매일 수천 개에 이르는 잠재적인 병원체를 격퇴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일부 바이러스는 기생할 숙주의 면역세포를 기습적으로 점령해 숙주의 면역 능력을 저하시킨다. 또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포식세포(탐식세포) 안에서 증식해 포식세포 손발을 묶는 식으로 병원균 감염에 속수무책으로 만든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에이즈 바이러스는 면역세포의 컨트롤타워라 할 ‘헬퍼T세포’(T림프구)에 달라붙어 그 속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전술을 쓴다. 헬퍼T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면 면역 체계도 붕괴되고 살상T세포가 움직이지 않아 감염 세포를 처리하지 못한다. 헬퍼T세포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B세포(플라스마세포)는 더 이상 자연 항체를 생산할 수 없다.

Q. 백신·치료제 외에 주목받는 치료법이 있나요?

A. ‘혈장치료 요법’과 바이오공학 차원에서 접근한 ‘단일클론항체’ 치료법이 있다. 혈장치료 요법은 완치 환자에게서 채혈해 얻은 혈장 항체를 활용해 감염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다. 감염 환자 혈액에서 추출한 항체는 바이러스A에 감염된 후 면역세포가 바이러스A를 표적으로 삼고 제거하기 위해 생산한 ‘요격 미사일’ 같은 맞춤형 면역물질이다. 코로나19 항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만 공격해 없앤다. 일례로 중국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혈장치료 요법을 사용해 치료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클론항체(monoclonal antibody)는 말 그대로 한 종류의 항체를 대량복제(생산)함으로써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생쥐에 주입하면 생쥐 몸속에는 면역 반응으로 B세포가 활성화돼 항체를 분비한다. 이때 B세포에서 만들어지는 항체는 오로지 코로나19 바이러스만 제거한다. 이런 항체를 만드는 B세포를 실험 용기에서 배양하게 되면 그 세포는 자라면서 항체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

Q. 백신 개발이 어렵다는데... 왜 그런가요?

A. 에볼라는 1976년 아프리카 수단·콩고에서 사망자 400여 명이 발생하면서 알려졌으나 아직 백신은 없다. 에이즈는 1981년 이후 30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여전히 백신이 나오지 않았다. 코로나19와



현명한 소비하려면 ‘마음속 계좌’ 분석부터



민준호 연구원의
심리학 교실

용돈을 실용적으로 쓰기 위해 돈에 목적을 붙여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용돈 10만원 중 5만원은 쇼핑비용, 3만원은 오락비용 등... 이렇게 돈에 목적을 붙이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될까. 행동경제학의 개척자이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세일러가 돈에 관한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독자들도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실험해 보자.

당신에게 용돈 10만원이 생겼다. 당신은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으로 향했다. 1만원짜리 영화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지갑을 열었는데, 1만원짜리 한 장을 잃어버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때 당신은 영화를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88%의 사람들이 1만원짜리 티켓을 구매하고 영화를 본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떠할까. 용돈 10만원이 생겨 영화관에 가기로 했다. 영화티켓은 1만원이며 오전에 미리 사두었다. 영화관에 도착했는데 티켓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티켓은 재발행이 안 되는 것이기에 영화를 보려면 1만원을 소비해 재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라면 사람들은 영화티켓을 재구매할까. 앞선 상황과 달라진 것은 '1만원'을 잃어버린 것과 '1만원짜리 영화티켓'을 잃어버린 것밖에 없다. 하지만 두 번째 실험에서 영화티켓을 다시 구매하겠다는 사람은 46%에 불과했다. 실제로 금액적인 손실을 계산해 보았을 때 두 사례 모두 1만원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동일한데도 말이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세일러는 이러한 현상의 이유를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심적 계좌의 차이라고 설명한다. 첫 번째 상황에서는 10만원이라는 한 개의 마음속 계좌가 존재한다. 그 한 개의 계좌에서 1만원이 사라진 경우는 10%의 손실로 지각될 것이다. 하



〈게티이미지뱅크〉

12개월 한꺼번에 헬스장 등록 “이 돈은 건강을 위한 투자야” 대부분은 자기 합리화 하지만 운동 등한시하며 본전 못챙겨 문화생활 비용·데이트 비용 등 ‘심리계좌’가 현명한 소비 방해

지만 두 번째 상황에서는 9만원의 용돈 계좌(10만원 중 1만원을 영화티켓에 소비한 후 남은 9만원의 계좌)와 1만원짜리 영화티켓 계좌가 마음속에 두 개의 계좌로 존재한다. 그리고 영화티켓을 잃어버린 것은 ‘영화티켓 계좌’의 100% 손실로 지각될 것이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100% 손실이 10% 손실보다 훨씬 더 크게 지각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소실된 100%의 계좌를 다시 떠올리는 행위를 꺼린다는 것이다.

이 행동은 고정경제학적 관점에서 매우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고전경제학에서는 돈의 기본 성질로 ‘대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돈에는 어떠한 이름도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느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일러가 개념화한 심적 계좌는 고전경제학의 개념을 깨뜨리고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행동경제학의 중요 가정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기사의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바로 심적 회계를 구성하는 것이

다. 그리고 이 행동은 실제로 돈을 조금 더 지혜롭고 똑똑하게 쓰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심적 회계를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예시는 또 있다. 다이어트에 도전하기 위해 헬스클럽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관찰해보면 한 달 또는 두 달 정도 운동을 해보고 자신에게 적합하다 싶으면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낫다는 사람도 있고, 1년 치 돈을 미리 지불해 등록하면 등록비가 아까워서라도 운동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다. 후자의 사례가 심적 회계를 이용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운동을 위한 투자금’이라는 계좌를 만들어 놓은 뒤 의도적으로 100%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운동을 계속 다니면 그 손실은 ‘낭비’가 아니고 ‘건강’으로서 복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운동을 다니지 않게 되면 그것은 오롯이 투자금 손실로 이어진다. 물론 모든 사람이 투자금을 건강으로서 회수하기 위해 등록된 기간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지속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순간적인 다이어트 욕구로 헬스클럽에 등록한 사람)이 지불한 비용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건강’을 회수해 간다. 대부분의 헬스클럽이 12개월 할인 마케팅을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는 투자금(금전적 손실)과 같은 강한 동기 부여가 필요한데, 그 동기를 조금이나마 할인해 줘 조금 더 적은 금전적인 손실로 유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적 회계를 ‘매몰비용’이라고도 한다. 인간은 이미 진행된 손실(매몰된 비용)을 메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데, 오히려 이 행동이 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술에 갑자기 관심이 생겨 그림을 배우기 위해 미술 강의를 등록했다고 해 보자. 16주 동안 진행되는 강의인데, 처음 몇 주 들어보니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매우 다르고 불만족스럽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불한 돈이 아까워서 뭐라도 건질 것이 있겠거니 하는 생각에 끝까지 강의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아까워서 강의를 포기할 것인가. 대부분 강의를 계속 듣는다고 하지만 강의료와 강의를 모두 포기하고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것이 더 유용한 결정일 수 있다. 이미 지불한 비용 때문에 금보다 비싼 ‘시간’에 대한 효용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인데 매몰된 비용 때문에 무의미한 강의만 계속 수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하는 그 행동들이 오히려 인간을 바보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지금 나에게 있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포기해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끔은 뒤집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ORP연구소 선임연구원

더 굳어진 땅 위에 선 '몬스타엑스'



(사진 제공=스타쉽엔터테인먼트)

‘글로벌 대세’ 몬스타엑스가 새 미니 앨범 ‘판타지아 엑스 (FANTASIA X)’로 돌아왔다.

지난달 26일 공개된 ‘판타지아 엑스’는 몬스타엑스가 국내에서 7개월 만에 선보이는 신보로, ‘변함없는 자신의 가치’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이틀이 다시 기록해 나갈 신세계를 담았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절대 나약해지지 않겠다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는 앨범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11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전 멤버 원호를 팀에서 떠나보내고 6인조로 재편한 뒤 새 마음으로 내놓는 첫 앨범이다. 지난 앨범 활동 당시 원호 이슈가 불거졌던 만큼 6인 활동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판타지아 엑스’를 통해 비운 뒤 더욱 굳어진 땅 위에 선 몬스타엑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각오다.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순간, ‘판타지아’

타이틀곡 ‘판타지아’는 몬스타엑스의 시그니처인 에너지틱함과 파워풀함이 돋보이는 곡으로, 앞을 막는 모든 것들을 부수고 나아가겠다는 패기와 에너지로 뭉친 이들의 불타오르는 잔치를 연상케 하는 곡이다. 에스닉한 멜로디, 역동적인 신스 사운드가 타이트한 리듬과 어우러져 강렬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리드미컬한 하우스에 압도적인 사우팅이 인상적이다.

뮤직비디오 역시 강렬 그 자체다. 수많은 무용수들이 함께 등장하는 뮤직비디오에서 민혁, 형원, 아이엠 등 몬스타엑스 멤버들은 압도적으로 차별화된 에



새 미니앨범 ‘판타지아 엑스’ 6인조로 7개월만에 국내 선보여 에너지 물씬 넘치는 타이틀곡 섹시함·자유분방함 동시에 담아 뮤직비디오에 강렬한 퍼포먼스 흑표범·블랙의상으로 거친 매력

너지를 발산한다. 흑표범과 함께 올블랙 의상으로 거친 매력을 뽐어내는 주현과 어둡고 깊은 물속을 유영하는 서누, 황금빛 슈트로 럭셔리함을 뽐내는 기현 등 멤버들이 보여주는 장면 하나하나가 강한 임팩트를 남긴다. 한층 강렬하고 성숙해진 퍼포먼스에는 몬스타엑스 특유의 야성미가 고스란히 응축돼 있다.

곡도 뮤직비디오도 어느 때보다 공들였다는 게 멤버들의 설명. 기현은 “정말 공을 많이 들였다. 회의도 다섯 번 정도 하면서 곡을 바꾸고 수정도 많이 했다.

멜로디나 가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강점인 퍼포먼스를 함께 보시면 매력이 더 잘 살아날 것”이라고 소개했다.

민혁 역시 “‘판타지아’라는 키워드가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의미다. 그런 모습을 담기 위해 스타일링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면서 “곡 분위기가 자유롭고 화려해서 웨스턴 분위기의 의상을 입는다. 섹시함과 자유분방함을 동시에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앨범에는 ‘플로우’ (FLOW), ‘스탠드 업’ (STAND UP), ‘존’ (ZONE), ‘카오틱’ (CHAOTIC), ‘뷰티풀 나이트’ (BEAUTIFUL NIGHT), ‘잇에인오버’ (IT AIN’T OVER) 등 총 7트랙이 담겼다. 뛰어난 음악적 역량을 보여준 주현과 아이엠은 수록곡 전곡 랩 메이킹에 나선 것은 물론 자작곡도 수록하며 아티스트의 면모를 한층 강화했다.

◆코로나19에 글로벌 행보 쉽표…국내 기반 다진다

2015년 5월 데뷔한 몬스타엑스는 ‘청

량’ ‘소년미’가 대세였던 당대 보이그룹 트렌드 속에서 초반부터 강렬한 남성미를 그들만의 팀 컬러로 내세워 온 그룹이다. 파워풀하면서도 절도 있는 안무와 세련된 음악으로 여타 그룹과 차별화를 일궈온 이들은 방탄소년단을 위시한 ‘글로벌 K팝’ 바람을 제대로 타며 점진적 성장을 거듭해 데뷔 6년차인 현재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팝 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행보를 보면 그 성장세가 뚜렷하다. 이들은 2018년, 2019년 2년 연속 미국 최대 음악축제인 ‘징글볼’ 투어에 참여하는가 하면 미국 ‘엘런쇼’ ‘굿모닝 아메리카’ ‘지미 키멜 라이브’, 영국 ‘굿모닝 브리튼’ 등 현지 간판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글로벌 보이그룹으로서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월 미국에서 발표한 첫 영어 앨범으로 ‘빌보드 200’ 5위에 오르는 등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내놓는 성적표도 매년 자체 기록을 경신 중이다.

한창 높아진 주가에 이번 역시 국경을 초월한 활동이 기대되는 시점이지만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에 해외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이에 글로벌 대세 이미지가 워낙 강한 탓에 상대적으로 아쉬웠던 국내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몬스타엑스는 “오랜만에 국내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몬스타엑스로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를 많이 했다”며 “팬들께 좋은 무대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박세연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기자



김경환 대표
행복한3월학원

성균관대학교가 발표한 2021학년도 온라인 입시설명회를 바탕으로 2020학년도 수시 결과를 정리·분석하겠습니다.

2021 성균관대 입시 변화 및 합격 전략

1. 2020학년도 수시 분석

성균관대는 2020학년도에 계열 모집으로 598명, 학과 모집 975명, 그리고 논술우수로 532명을 선발했습니다.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은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서류 100%로 평가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없습니다.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평가 영역은 크게 학업역량(학업수월성, 학업 충실성), 개인역량(전공적합성, 활동다양성), 잠재역량(자기주도성, 발전가능성) 등 세 가지입니다. 논술 우수는 논술 60%+교과 30%+비교과 10%를 일괄 합산하여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습니다.

(1) 계열 모집

계열 모집으로 입학한 신입생들은 1학년 때 교양 과목을 이수하고 2학년에 진학하면서 본인의 전공을 선택합니다. 2020학년도 경쟁률과 추가 합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학년도 계열모집 경쟁률·추가 합격률

구분	계열	모집인원 (명)	지원인원 (명)	경쟁률 (형식)	경쟁률 (실질)	합격인원 (명)	추가 합격률
인문	인문과학	125	1,339	10.7	3.01	449	259.2%
	사회과학	141	2,405	17.1	3.5	691	390.1%
자연	자연과학	109	1,945	17.8	4.5	431	295.4%
	공학	223	3,074	13.8	3.2	951	326.5%

성균관대 계열 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추가 합격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인문과학계열이 259.2%이며, 사회과학계열은 390.1%로 높습니다. 따라서 추가 합격 인원까지 반영한 실질경쟁률은 인문과학계열 3대1 등으로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성균관대는 연세대·고려대 등 최상위권 대학과 중복 합격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계열 모집 등록자의 내신 분포를 보면 1등급대가 가장 많지만 4등급대 합격자도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1등급대 비율은 사회과학계열(73.7%), 공학계열(62.6%), 자연과학계열(61.2%)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 학과 모집

학과 모집도 계열 모집과 동일하게 서류 100%로 선발합니다. 학과 모집의 경우 특성화학과의 추가 합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성화학과 경쟁률은 2대1 수준으로, 이는 연세대·고려대 등 최상위권 대학과 중복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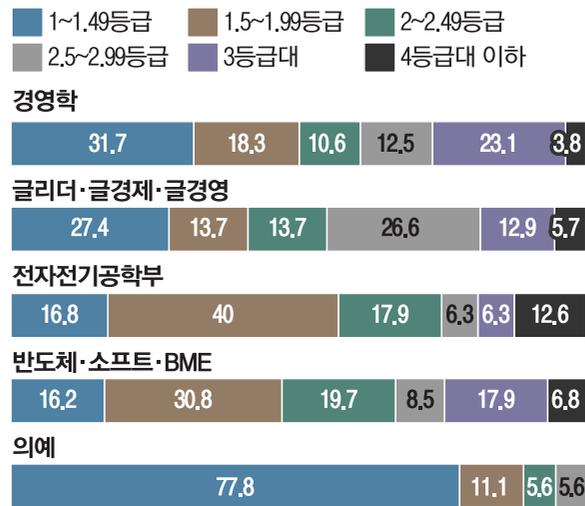
다음으로 학과 모집 등록자의 내신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4등급도 성균관대 내신 다소 부족하다면 '논술우수' 두드려라



<게티이미지뱅크>

학과 모집 등록자 내신 분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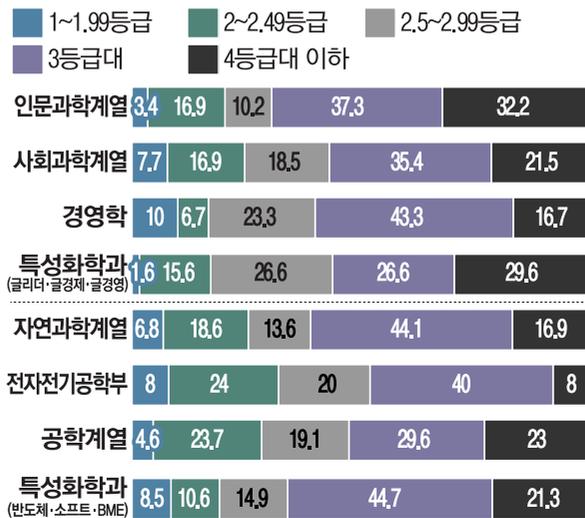


계열 모집과 마찬가지로 내신 1등급대 학생이 가장 많지만, 전자전기공학부의 경우 4등급 이하가 12.6%로 매우 높습니다. 즉, 내신 성적이 우수할뿐더러 비교과도 잘 갖춘 수험생들이 합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논술 우수

논술은 내신 성적과 비교과 활동이 부족한 수험생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전형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고 추가 합격률이 매우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등록자의 내신 분포를 보면 1등급대 비율이 매우 낮고 3등급대, 4등급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술 우수 등록자 내신 분포(단위=%)



2. 2021학년도 수시 전형 분석

성균관대는 2021학년도에 수시 68.4%, 정시 31.6%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2020학년도와 전형, 모집 인원의 큰 변화가 없습니다.

2020학년도에 비해 달라진 점은 인문·자연을 통합한 통합학과인 '글로벌융합학부'를 신설하여 50명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사이언스 전공' '인공지능 전공' '컬처엔테크놀로지 전공' 등 세 전공 분야로, 창의융합복합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시 모집 인원과 전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학년도 수시 모집 인원·선발 방법

전형 유형	전형명	모집 인원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 (%)	수능최저 학력기준	학년 제한
계열모집	계열모집	655	서류 100	X	
	서류 100				
	※ 의예, 사범대학, 스포츠과학				
종합 학과모집	1단계: 서류 100	915		X	
	2단계: 1단계 성적 80+면접 20				없음
고른기회	고른기회	40	서류 100	X	
	논술 60+교과 30+비교과 10				
논술	논술우수	532	논술 60+교과 30+비교과 10	O	
실기/실적	특기/실기 우수자	103	1단계: 서류 100	X	
			2단계: 1단계 성적 40 +면접/실기 60		

학생부종합의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이며, 실기/실적 위주는 학과에 따라 활동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학생부종합 전형

학생부종합전형은 서류 100%로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없습니다(단, 학과 모집의 의예, 사범대학, 스포츠과학과는 2단계에서 면접 20%를 반영합니다). 또한 자기소개서 양식은 대학 지율문항인 4번의 문항이 바뀌었습니다.

성균관대 자체 문항

4. 성균관대학교와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관련하여 본인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2) 논술우수

논술우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충족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발표에 의하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면 실질경쟁률은 크게 낮아집니다.

면접 비중 높은 교대... 시간 재가며 실전처럼 연습

2021 교대 면접 방식과 효과적인 준비 전략 1



이명우 수석컨설턴트
행복한3월학원

교대는 일반 대학에 비해 면접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호에서 확인했듯이 교대는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 서류를 통해 2~3배수를 선발하고 1단계 통과자를 대상으로 2단계 면접을 실시해 1단계 성적과 합산해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 면접 비중이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50%에 이를 정도로 면접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일반 대학의 학종 면접이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류 중심의 인성 면접인 것과 달리 교대는 집단토론, 개별 발표 면접, 개별 면접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면접 시간 역시 개별 면접처럼 10~15분 내외에서 토론면접의 50분까지 면접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의 면접 유형과 면접 방식, 면접 시간 등을 확인하고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연습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교대 면접 평가 영역 및 목적

교대 면접의 평가 영역은 크게 교직 적성과 교직 인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울교대는 교직 인성, 교직 적성, 교직 교양의 세 가지 영역을, 춘천교대는 교직 적성, 교직 인성을 평가합니다.

면접 평가 영역

대학	평가 영역
서울교대	교직 인성
	교직 적성
	교직 교양
춘천교대	교직 적성
	교직 인성

교직 인성은 교사로서 인성적 자질을, 교직 적성은 교사로서 잠재 능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직 인성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교직 적성은 교육과 관련된 제시문을 바탕으로 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2. 교대 면접 유형, 면접 방식

(1) 집단면접 (집단토론면접)

집단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은 경인교대와 공주교대, 진주교대입니다. 조 편성은 6명 내외이며, 30~50분 사이로 토론이 진행됩니다. 집단토론면접을 통해 교사로서 품성과 자질 및 태도 등을 평가하며, 문제에 대한 개인 견해 발언 및 토의 실시 순으로 진행됩니다.

① 경인교대 2020학년도 학생부종합 (교직적성전형) 문항1

※우측 표 참조

② 진주교대 2020학년도 학생부종합 집단면접

※우측 표 참조

③ 집단토론 면접 준비 방법

집단토론 면접의 주제는 찬성과 반대가 가능한 논쟁적인 주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시사적인 주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 현안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함께 찬성과 반대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단토론 면접은 주제와 관련한 제시문이 주어지므로, 제

경인교대 2020학년도 학생부종합(교직적성전형) 문항1

전형 학생부종합(교직적성전형) 문항1

문제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기대 효과와 문제점을 각각 세 가지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세 가지를 제안하시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노인 복지 축소와 노인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축소하는 결과 출제를 낼 수 있어 정책 도입에 대한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 의도를 면접 문항으로 출제하고 응시자들이 이에 대해 어떠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진주교대 2020학년도 학생부종합 집단면접

전형 학생부종합(21세기교직적성자) 문항1

- 1) 독일 정치교육의 원칙으로 인정되는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er) 합의의 세 원칙 중에 논쟁성 유지의 원칙이 있다. 이는 수업시간에 쟁점을 도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논쟁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2)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해당 사안(세월호, 촛불집회)을 활용하여 계기수업을 하려고 하는 일부 교사와 그것을 사회 혼란의 주범으로 간주하거나, 편향된 교육으로 간주하고 징계하려는 교육 당국 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조선일보, 2017. 4. 7)
- 3) 최근 한국 사회는 각종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 보수-진보 진영 간 대립이 심각하다. 문제는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아예 배제해 버리거나 다른 생각에 대해 아예 들어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나타난다는 점이다.

▶ 위의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문제에 답하시오.

1. 1)의 논쟁성 원칙과 2)의 교육 당국의 입장 중에서 자신이 동의하는 것을 이유를 들어 밝히시오.
2.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과 3)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업시간에 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말해보시오.

문제 집단토의 면접을 통해 예비 초등교사로서 교직 적성·인성을 평가한다. 상호 보완적인 자유토의 방식의 면접을 채택하여 지원자의 생각이나 주장을 나타낼 수 있는 발표력,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표현력, 다양한 관점과 사고를 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수용력, 토의를 잘 이끌어 가고 구성원과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는 사회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서울교대 사향인재전형

전형 서울교대 사향인재전형

▶ 과제

문제 일상생활 속에서 궁금한 점을 탐구 주제로 정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통계 자료가 포함된 '통계 포스터'로 만들려고 한다. 아래의 <과제 수행 지침>에 따라 통계 포스터를 가상으로 제작하여 발표하시오.

▶ '통계 포스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궁금한 점을 탐구 주제로 정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통계 자료가 포함된 한 장의 포스터로 구현한 것이다.

▶ 가상의 통계 포스터 제작 활동은 특정한 내용 지식을 묻는 활동이 아니라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정보 처리 및 해석 능력, 자료 구성 능력, 논리적 사고력 및 비판적 사고력 등을 종합적으로 요구하는 활동이다.

출제 의도 ▶ 이 활동은 현행 고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 요소(예: 개방형 탐구)에 해당하므로, 학생들이 현행 고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계 포스터 제작 활동을 위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가지지 않으며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시문의 내용을 근거로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단토론 면접의 성격과 절차를 이해

하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집단 면접은 제시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사고를 포용해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수용력, 토의를 잘 이끌어가고 구성원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는 사회성 등을 중시합니다. 이러한 집단 면접의 성격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면접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실전 연습입니다. 개별 면접에 비해 집단 면접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교대 지원자들끼리 팀을 구성해 다양한 주제로 실전 연습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개인 과제 발표

서울교대 사향인재전형, 청주교대 배움나눔전형에서 발표과제면접을 실시합니다. 서울교대는 30분 준비,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청주교대는 준비 10분, 발표 5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① 서울교대 사향인재전형

※좌측 표 참조

② 개인 과제 발표 준비 방법

개인 과제 발표(개인 발표 면접)는 주로 교육과 관련한 주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등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시사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발표 준비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출제 의도와 답변의 방향을 결정하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교대는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지만, 청주교대는 필기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핵심 답변 내용을 정리한 다음 그 근거를 답변하는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방법은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실전처럼 연습하는 것입니다. 각 대학은 면접 기출 문제를 공개해 수험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동아리 구성원이나 선생님들을 면접관으로 가정해 실전처럼 연습하는 훈련을 지속하면 면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8호에는 교대 '개별 면접'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탓만 하며... '지금' 소홀히 보내고 있진 않나요

“혹시 15년 전 인도 바라나시 여행 때, 중학교 사회교사와 함께 하지 않았나요?” 나의 질문에 자신의 수업을 설명하던 영화강사는 하던 말을 멈추었다. “내가 그때 그 교사인데...” 영화강사는 깜짝 놀라서 내 얼굴을 쳐다봤다.

학생들이 재학 중 한 학기 이상 학급 단위로 뮤지컬, 연극, 영화를 만들어보는 예술체험교육인 협력종합예술 업무를 하던 중 영화 수업을 잘하고 있는 영화강사님을 만나던 중이었다.

대화 중 불현듯 15년 전 인도여행 당시 갠지스강이 있는 바라나시를 함께 여행했던, 사진학과에 다니던 대학생이 떠올랐다. 렌즈가 큰 카메라를 들고, 연습 삼아 내 사진도 찍어줬던 그 여학생이 바로 영화강사였다. 놀란 건 나만이 아니었다. 상대방 역시, 장학사에게 자신의 수업을 설명하던 중 15년 전 이야기



임윤희 장학사의
교육현장 이야기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며

를 꺼내니 놀란 건 마찬가지였다. 여행 중 찍은 사진 중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정리하다 보면 대부분 그 여학생이 찍어준 사진들이 뿔뿔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죽음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낀 바라나시 여행 중 만났던 인연이라 잊은 듯 잊지 않고 살아왔던 터라, 그 여학생을 만난 것은 15년 전 나를 소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있었다.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진 후 인연이란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우연히, 정말 운명처럼 만나게 되기도 하니 말이다.

그래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더욱 소중하게 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내 삶뿐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도 내가 원하는 원하지 않는 언젠든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삶에서 지우고 싶는데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알고 보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라는 톨스토이의 말을 기억하며 다시 추억을 소환하기 위해 여행 사진첩을 꺼내본다. 처음엔 800

장이 넘던 유럽여행 사진은 이제 줄고 줄어서 100여 장만 남았다. ‘언제 다시 오리’ 하는 마음으로 사정없이 필름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던 순간이 기억난다. 여행지에서 느낀 감동과 성찰을 마음에 새기기보다, 여행지의 피상적인 걸 모습을 사진에 새기려고 애썼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보니, 지금은 여행을 가도 사진을 많이 남기지 않는다. 나이 들어가며 내 모습을 전지적 작가시점으로 보기에 부담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사이 여행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 달라져서일 수도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여행과 같다. 무엇인가를 잔뜩 움켜쥐고 정작 여행을 즐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중요한 순간들은 마음으로 기억하며, 누군가에 삶에 새겨질 내 모습도 돌아볼 때이다.

엄마의 온실...

그속에서 길을 잃은 학생들

[상담사례] 얼마 전 27세 자녀를 둔 어머니와 상담을 진행했다. 서울 소재 명문 S대를 졸업했고, 공부도 곧잘 했기에 회계사 시험을 2년 정도 준비했다. 그러나 상법과 재무 등의 과목에서 어려움을 느꼈기에 회계사 시험을 포기하고 공무원이나 공사 쪽 시험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담을 하다 보니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어머니는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있었고, 집안이 보통 가정보다 유복한 집이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싶었던 것은 쉽게 가질 수 있었고, 성장하면서 큰 역경도 없었고 실패를 겪을 기회도 없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서로 각자 다른 착각 속에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부모의 문제는 자녀를 객관화해서 보기를 실패했다는 것이다. 부모는 무슨 공부든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녀는 회계사 공부에 가장 중요한 기업재무와 상법 과목이 재미없어서 공부를 포기했다. 부모는 인지 부조화 상태를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하는 자녀에 대한 기대감과 자녀가 평범하지 않고,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착각 속에서 자녀를 방어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자녀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는 변명하기가 급급해졌다.

부모의 이런 착각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이런 태도 덕분에 자녀 역시 자신이 평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남들에 비해 우월하다는 생각에 더 노력하지도 않으며 경쟁에서 뒤처지면 자존심에 상처

를 입고 중도에 목표를 포기해버리는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경쟁에서 뒤처짐이 자식의 노력이나 학습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해야 더욱 노력하는 열정을 보일 텐데 이를 인정하기 싫으니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이라 다른 직업을 찾아야겠다는 현실 회피와 자기합리화의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한다. 하면 더 잘할 수 있으나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으니 합격을 해도 자신과 맞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런 상담사례는 특이한 것이 아니다. 굉장히 일반적이고 많이 범하고 있는 실수이다. 특히 당장의 어려움을 회피하더라도 생활과 금전적인 문제가 바로 와닿지 않는 가정에서 많이 발생한다. 자녀가 실패를 겪는 것도 싫고 남보다 뒤처진다고 스스로 인정하기 싫으며 어릴 적부터 부모가 자녀를 과잉된 보호로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웠을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진로탐색과 결정이 어려운 이유가 객관적인 자아탐색을 위한 주관적 판단과 부수적인 배경을 배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보유하고 있는 능력과 학벌, 가정환경 등은 진로에 있어 가산적인 요소는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요인은 아니기에 별개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는 한 걸음 떨어져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지도하거나 전문적인 진로상담사를 통해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다.



김재우 기초역량개발연구원 원장



<게티이미지뱅크>

118년 기업까지 날려버린 코로나 신기술 활용력 갖춰 대격변 대비를



미국 유명 백화점 JC 페니가 118년 역사를 뒤로하고 쓰러졌다. 세계경제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지난 5월 JC 페니는 파산을 신청하였다. 오프라인 소매업은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라 이미 위기에 처해 있었고, 코로나19는 이에 마지막 일격을 가한 것이다. 이 사건은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변환의 일단을 보여준다. 코로나19는 디지털적 변환,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 등으로 명명되는 시대적 변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다양한 차원에서 직업세계 변화에 관여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산업 구조, 일자리, 일하는 방식, 소비 방식 등에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뜻하지 않게 자동화를 가속화하고 로봇 도입을 서두르는 계기가 되었다. 공장 노동자 가운데 감염병 환자가 속출하고 사업장이 폐쇄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번 감염병 사태는 로봇 도입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라인 교육, 영상 회의,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산업과 온라인 콘텐츠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었다.

ILO(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일자리 2500만개가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 노동자 중 81%에 해당하는 27억명에게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객과 얼굴을 맞대고 일을 해야 하는 다수 직업인들은 상당 기간 일자리를 잃는 경험을 해야 했다. 비행기 조종사와 승무원 등 항공업 종사자, 호텔리어, 학습지 교사, 생활체육 강사, 연극이나 뮤지컬 배우, 댄서, 레스토랑이나 유흥업소 서비스 노동자 등은 코로나 한파를 심하게 맞아야 했던 직업이다.

반면에 비대면 콘텐츠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 제작자, 크리에이터를 포함한 영상 콘텐츠 제작자,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자, 신약 개발자, 온라인 쇼핑물

온라인 시장·디지털산업 확대 코로나19 사태에 더욱 빨라져 기존 일자리 급속히 무너지며 일하는 방식 자체까지 변화 빅데이터·사물인터넷·AI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 능력 관건

운영자, 금융권 핀테크 전문가 등은 코로나로 인한 특수를 누린 직업이다.

직장인이 일하는 방식도 큰 변화를 겪었다. 우리나라 직업인의 대표적인 업무 방식은 '9시 출근 6시 퇴근(9 to 6)'이다. '9 to 6' 근무 방식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수 기업이 재택근무를 채택하였으며, 앞으로 바이러스가 소강 상태를 보이더라도 과거로 완전히 되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어떤 정부도 못한 유연근무제를 바이러스가 강제한 셈이다. 작업자들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재택근무를 한다면 재택근무는 사무실 근무에 비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재택근무가 용이한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이 있다. 현장에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거나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직업이라면 재택근무가 쉽지 않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나 교육 서비스는 대부분 업무를 재택업무로 돌릴 수 있다. 운송이나 공장의 생산 업무는 사실상 재택업무가 어렵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새로운 전환의 시기에 미래 직업세계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은 어떤 역량을 갖추어

야 할까? 무엇보다도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본인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시대에는 '프로티언 경력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프로티언(Protean)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프로테우스(Proteus)에서 나온 단어다. 프로테우스는 위기에 처하면 환경에 따라 자유자재로 자기 모습을 바꾸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프로티언 경력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확고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진로를 개발한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은 신기술 활용 능력을 키워야 한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R·VR 등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로봇이 서빙하는 호텔과 무인 매장, 인공지능 챗봇, 실감 콘텐츠 등에 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갖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팀워크와 협업 능력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재택근무로 팀원들이 면대면으로 작업을 하지 않을 때 원거리에서도 조직적으로 협력하고 팀원 의견을 이해할 수 있는 협업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재택근무는 조직생활 중 일부다. 복잡하고 중요한 프로젝트 대부분은 혼자가 아니라 다수 팀원이 함께 수행하는 작업이다.

서로 다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리면서 각자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수렴하는 과정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열쇠다.



한상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진로교육연구본부장



<게티이미지뱅크>

원격의료 도입해야 할까?

비대면 진료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

세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 구조와 삶의 방식 등 사회 전반적인 부분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사람과 사람 간 접촉이 없는 언택트(Untect) 시대가 다가오면서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도 벌써부터 공연·교육·금융·쇼핑·영화 등 다방면에서 언택트 산업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의료계에도 예외 없이 언택트 바람이 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진과 환자 간에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지

만, 지난달 14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더불어 같은 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공식 브리핑에서 원격의료 제도화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렇게 정부가 비대면 의료 허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밝히면서 사람들 사이에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대면 진

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국민 85.3%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비대면 진료를 활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측의 주요 의견은 먼저 의료 산업이 활성화되고, 의료 사각지대의 진료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반대로 비대면 진료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오진 가능성이 높고 대형병원의 독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의료정보 입력과 전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는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해 긍정적

이다. 비대면 진료를 함으로써 진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면 의료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도서산간 지역과 섬에 살고 있는 사람, 거동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직접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전화로 의사에게 진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비대면 진료 도입의 가장 큰 필요성이라고 생각한다.

이승리 틴매경 학생기자(성암국제무역고2)



감염병·정신과 치료 등 진입장벽 낮출 기회

비대면 진료를 지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정신과 치료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와 같이 밖을 나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질병은 대면진료를 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정신과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때에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환자들은 더욱 편안한 상태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비대면 진료를 지지한다.

두 번째 이유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

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면진료는 한 공간에 여러 사람이 밀집될 때가 많으나 비대면 진료는 자신의 집과 같은 개인적인 공간에서 진행하기에 사람에 의한 감염병의 전염 위험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이유는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시골과 같은 의료 시설이 부족한 곳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들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병원까지 방문할 시간이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든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의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 방법을 통해 진료 가능한 질병들은 제한하며 전화통화나 영상통화로도 진료 가능한 질병들은 진료 가능 범위를 좁게 하여 차근차근 넓혀나가는 방법으로 진료를 시행한다면 의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의료 영리화를 막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면 좋겠다.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 때문에 무작

정 반대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언택트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2020년 현재 금융, 영화, 쇼핑, 식품 등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은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는 언택트 기술이 의료 서비스에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전이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김수진 틴매경 학생기자(부산보건고3학년)



언택트 시대에 대면진료 고집할 필요 없어

비대면 진료에 대하여 찬성하는 측의 의견은 이렇다.

우선 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완화해줌으로써 병원 방문으로 인한 시간·비용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비대면 진료를 통하여 의료업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의료업계에서는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다. 그 결과 환자와

의료진이 비대면함으로써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안전까지 보장되었으며,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60세 이상 고령 환자, 당뇨·고혈압 환자 등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와 대면하지 못해 생겨나는 오진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환자들로 인하여 동네나 지방에 위치한 병원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며 비대면 진료에 대

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대한약사회 또한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을 활용해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절대 불가하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시작은 원격 진료의 추진을 위함이고 나아가 이는 의료 영리화의 실마리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비대면 진료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와 같은 비대면 진료는 긍정적 부분도 존재하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비대면과 같은 언택트 문화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대에서 의료도 그 예외가 되어서 안 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작된 비대면 진료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필요해질 부분이다.

박소영 틴매경 학생기자(대전여상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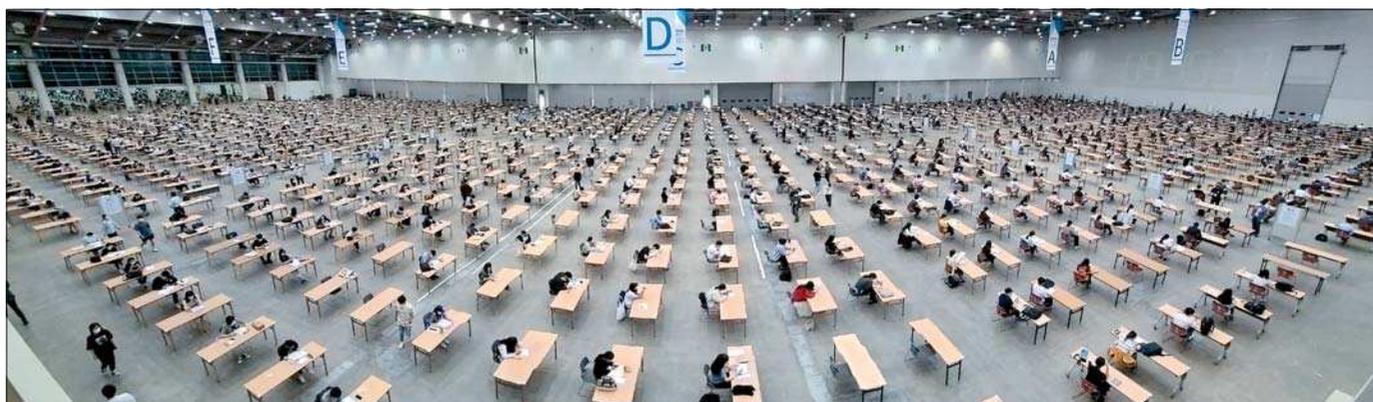


다시 시작된 시험들...고사장 예방수칙 준수부터

2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속화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에 시행되던 자격증 시험들이 잇달아 연기되었다. 다행히도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하루에 10명 안쪽으로 하향세를 보이며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었고 7급 공무원 시험을 시작으로 공무원 시험도 재개되어 다른 자격 시험도 차례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시험이 재취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수험생들은 시험 응시 시 꼭 지켜야 할 주의 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그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마스크 착용이다. 마스크 구매도 어렵지 않기에 시험 응시자들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집을 나선 후부터 집에 도착하기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손 소독이다. 간혹 시험



지난달 30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도시철도공사 채용시험에서 응시생들이 3m 거리 간격을 두고 시험을 치르고 있다. 【앵무신】

이 종으로 진행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 진행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사람이 한 컴퓨터를 만져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손 소독제로 꼭 소독을 하고 물티슈를 이용해 컴퓨터와 마우스 등을 닦거나 장갑을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시험 응시 후 일정 기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것이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했어도 감

염 위험이 완전히 소멸될 수는 없다. 많이 안정된 상황일지라도 시험 응시자들은 시험 응시 후에 1~2주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잘 유지해준다면 시험 응시도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시험 응시를 위해 야외에서 시험이 진행되기도 하고 다섯 차례 넘게 시험이 취소되고 재시험 응시를 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반복되기도 했다. 어렵게 재개된 시험인 만큼 시험 응시자들이

주의 사항을 잘 지켜 향후 시험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자격증 시험 이외에도 공무원 필기시험과 학교 지필고사 등도 위 규칙을 준수해 일상생활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었으면 한다.



윤다인 틴매경 학생기자(경민비즈니스고2)

위안부 문제, 세계 청소년에 '음짤'로 어필해 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인권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용수 할머니는 피해자들이 30년 동안 정의기억연대에 이용되었고, 성금은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윤 전 정의연 대표, 현재는 당선인이 된 윤미향 씨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국회의원은 안 된다며 입장을 굳혔다. 지난달 25일 이용수 할머니는 두 번째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신이 일본군에 끌려갔을 때 겨우 14살이었고,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였다는 사

실을 밝혔다.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당했다니 감히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듯하다.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해결해줄 사람은 우리 학생들이라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인터뷰를 보면서, 학생들이 '팽수'와 같은 사고를 지니고, '음짤'을 통하여 지금 시대에 걸맞은 위안부 문제의 창의적인 해법을 가졌으면 한다.

남극 팽. 빼어날 수.

팽수는 당당하다. 무거운 권위에 억눌리거나 암울한 상황에 답답해하지 않는다. 방송국 PD, EBS 사장, 국회의원,

장관에게도 '팽하'하고 인사하고 '버럭'하고 무찔러버린다. 즉, 팽수는 '내가 나다!'라는 선명한 자기선언을 한다. 난 이러한 팽수와 같은 기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며, 위안부 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자신에 대한 온전한 믿음 속에서 행동으로 위안부 문제를 부딪쳐서 상황을 풀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팽수와 같은 기개를 지닌 청소년들이 어떠한 방법을 활용해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난 이러한 해결에 대한 방법으로 '음짤'을 제안하고자 한다. '음짤'은 움직이는 짧은 동영상의 약어로

언어, 사진, 동영상과는 다른 표현 방식을 말한다. 전 세계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새로운 표현 수단인 음짤에 열광하고 있다. 과거의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위안부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닌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인 음짤을 통해 '감정의 몇 마디인 역사-철학적 고민'이 아닌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렸으면 한다.



박지우 틴매경 학생기자(경화여중 3학년)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고의성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의 동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SUV 차량 운전자가 9살 남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 누나는 동생이 운전자의 자녀를 때렸는데 사과 없이 떠나자 200m가량 쫓아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상에선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분명하다며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추돌 상황 등을 볼 때 살인의 고

의까진 말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해치려는 의도는 충분히 따져볼 만하다. 상식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를 차로 들이받을 경우 어린이가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고, 고의가 아니라면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다.

"자신의 아이나 가족이 맞았는데 때

린 사람이 도주했다면 누구라도 분노했을 것이다", "9살 남아가 5살 여아를 때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아이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실랑이가 있었는지도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반응들을 보이며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가해자를 옹호하기도 했다.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에게 잠시 이야기 하자고 했지만 그냥 가버려 뒤따라가다가 사고를 냈을 뿐 고의로 한 것이 아니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에 근거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고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일방을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다희 틴매경 학생기자(천안여상 2학년)

공인번호 : 기획재정부 제2018-180호
등록번호 : 2012-0277호

매일경제
MAIL BUSINESS NEWSPAPER

틴매경 TEST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

열리는 취업의 길,
틴매경 TEST와 함께!



자격명 :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틴매경TEST) | 자격의 종류 : 국가공인민간자격(A+,A,B) / 등록민간자격(C,D)
응시료 : 2만원 | 환불규정 : 정기접수 마감일까지 환불 신청시 응시료 전액 환불(송금수수료 제외), 정기접수 마감일 이후 환불 불가
발급기관 : 매일경제신문사 | 대표자 : 장대환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매경미디어센터)
연락처 : 02-2000-2469 | 홈페이지 : <http://mktest.org> | 이메일 : mktest@mk.co.kr